

-겠-

의지, 추측, ~하겠다

다음처럼 어간과 어미 사이에 들어가는 요소입니다. -았/었- 다만 이것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씁니다. 말하는 사람 자신의 의지나, 다른 사람의 상황에 대한 추측을 나타냅니다.

■ 결합 방법

상황	형태	예
모든 어간	-겠- — 형태 변화 없음	가다 → 가겠어요
ㄹ 어간은 ㄹ 유지	-겠-	알다 → 알겠어요
격식 있는 선언	-겠습니다	제가 하겠습니다
다른 사람에 대한 추측	-겠어요	맛있겠어요
과거에 대한 추측	-았/었-	힘들었겠어요
고정 표현	통째로 익히기	알겠습니다, 모르겠어요, 잘 먹겠습니다

■ 언제 쓰나요

형태는 쉽습니다. 겠은 어떤 어간에든 바로 붙으며, 모음 규칙도 ㄹ 탈락도 없습니다. 가겠어요, 먹겠어요, 알겠어요.

의미는 주어의 인칭에 따라 나뉩니다. 주어가 1일 때는 격식 있게 결심을 밝힙니다: 제가 하겠습니다. 회의에서 자원할 때 쓰는 말이지, 친구에게 커피를 권할 때 쓰는 말은 아닙니다. 주어가 다른 사람이나 사물일 때는 눈앞의 근거에서 나온 추측이 됩니다: 맛있겠어요 (맛있어 보인다), 힘들겠어요 (힘들겠다).

또한 더 이상 미래의 느낌이 없는 고정 표현 안에도 씁니다: 알겠습니다 (이해했다), 모르겠어요 (잘 모르겠다), 잘 먹겠습니다 (식사 전 인사). 이런 표현은 통째로 익히세요.

■ 예문

- 1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.
- 2 내일은 비가 오겠어요.
- 3 많이 피곤하시겠어요.
- 4 잘 먹겠습니다.
- 5 이거 정말 맛있겠다!
- 6 잠깐 도와주시겠어요?

■ 비교

-(으)ㄹ 거예요
둘 다 앞으로의 일을 가리키지만 -겠-은 격식 있고 선언적인 반면, -(으)ㄹ 거예요는 계획을 말하는 일반적인 방법입니다. ‘내일 시장에 갈 거예요’처럼 평범한 계획에는 뒤의 것을 쓰세요.
제가 하겠습니다. (자원) / 내일 갈 거예요. (계획)

-(으)ㄹ 게요
-(으)ㄹ 게요는 듣는 사람에게 하는 약속으로 따뜻하고 대화적입니다. -겠-은 여러 사람 앞에서 공표하는 말투입니다. 둘 다 ‘하겠다’는 뜻으로 잘못 고르면 문법이 아니라 말투(격식)의 오류가 됩니다.
제가 하겠습니다. (회의에서) / 제가 할게요. (친구에게)

-(으)ㄹ 것 같다
추측에서 -겠-은 즉각적인 반응으로, 대상을 눈앞에 보고 있을 때 씁니다. -(으)ㄹ 것 같다는 생각해 본 의견이라 눈앞에 아무것도 없어도 쓸 수 있습니다.
맛있겠어요. (음식을 보며) / 맛있을 것 같아요. (맛있을 거라 생각함)

■ 주의

- ✗ 네, 알습니다.
- 네, 알겠습니다.
지시에 대한 정해진 대답에는 항상 겠이 들어갑니다. 압니다도 있지만 ‘사실로서 알고 있다’는 뜻이라 이 상황에 맞지 않습니다.
- ✗ 내일 친구를 만나겠어요.
- 내일 친구를 만날 거예요.
-겠-을 쓰면 평범한 계획이 격식 있는 선언처럼 들립니다. 일상적인 약속이나 계획에는 -(으)ㄹ 거예요를 쓰세요.
- ✗ 저 커피 마시겠어요. — 친구에게
- 저 커피 마실게요.
친구 사이에서는 곧 할 일을 말할 때 -(으)ㄹ 게요가 자연스럽습니다. -겠-은 격식 있는 자리에 어울립니다.